

광주 탁구의 힘...한국 남녀 단체전 동반 결승행



광주시청 김영건·김정길·서수연 맹활약 오늘 금메달 놓고 남녀 모두 중국과 격돌

대한민국 장애인 남녀 대표팀 주축인 김영건(37)·김정길(35), 서수연(35·이상 광주시청)이 2020 도쿄 패럴림픽 단체전 결승에 진출했다. 김영건과 서수연은 아쉽게 개인전 은메달에 그쳐 이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낼지 주목된다.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 김영건, 김정길은 1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체 4강전(스포츠등급 TT4-5)에서 프랑스의 플로리앙 메리앙, 니콜라 사방 에라, 막심 토마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TT4-5 체급 단체전에서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 김영건은 이번 대회 개인 단식(TT4) 은메달에 이어 메달 두 개를 목에 건다. 한국은 프랑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패럴림픽 탁구 단체전은 올림픽과 같이 복식-단식-단식 순으로 치러지며, 이 세 경기 중 두 경기에서 먼저 이기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한국은 1복식에서 김영건-김정길 조가 메리앙-사방 에라 조에 3-1로 이긴 데 이어 2단식에서 김영건이 토마를 18분 만에 3-0으로 제압해 손쉽게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백영복-김영건-김정길 조는 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강호' 중국과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린다. 한국은 2016년 리우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한국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한국은 2012년 런던 대회 이 종목에서 중국에 1-3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리우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중국을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 대만을 격파하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최일상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던 김영건과 김정길은 준결승을 마치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영건은 "2016년도에 중국을 이기고 결승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처럼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전 결승에서 터키의 압둘라 외즈튀르크에 패한 김영건은 앞서 단체전에서 터키를 꺾고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터키는 단체전 8강에서 슬로바키아에 쳐탈락했는데, 김영건은 "복수는 아쉽게 됐지만, 중국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중국이 올라올 텐데 내일 아침 경기 준비 잘해서 이기겠다"고 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믹스트존을 벗어난 이들은 "야, 금메달 따자"고 유쾌하게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1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체 4강전(스포츠등급TT4-5)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김영건(왼쪽)-김정길 조가 프랑스의 플로리앙 메리앙-니콜라 사방 에라 조를 상대로 복식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탁구 TT1-3 체급 단체전에 나선 서수연, 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 윤지유(21·성남시청)의 마지막 관문 역시 중국이다.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는 이날 대회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의 헬레나 드레타라 카리치-안델라 무

지니치 조를 2-0으로 잡고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확보했다. 개인 단식에서 서수연이 은메달, 이미규와 윤지유가 동메달을 따내면서 이들 세 명은 모두 이번 대회에서 메달 두 개씩을 획득한다. 리우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서수연, 이미

규, 윤지유는 이번 도쿄 대회에서는 정상을 노린다. 단식에서 중국 류징에 분패한 '맘언니' 서수연은 "개인전 때 중국에 쳐서 단체전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단체전에서는 꼭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패럴림픽 꼭 가” 먼저 간 남편의 응원

광주시청 양궁 조장문, 유품 정리하다 마지막 편지 발견

오늘 여자 개인전 16강 출전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양궁 여자부 국가대표 조장문(55·광주시청)은 3년 전, 남편 김진환씨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남편은 소아마비로 오른팔이 불편한 조장문이 2012년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17년 10월 갑작스레 허리 통증을 호소해 검사를 받았고, 간암 말기였다. 암세포가 간에서 척추로 전이됐고 손을 쓰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남편은 2018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조장문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번 더 눈물을 흘렸다. 남편 김씨가 병원에서 쓰던 다이어리에서 자신에게 쓴 편지를 뒤늦게 발견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여보, 고맙고 미안하다. 못한 남편을 살리려고 했는데 평생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도쿄 패럴림픽도 함께 할 수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못난 나를 만나서 아들과 딸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주시고 고맙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장성한 두 아들이 있고, 예쁜 딸도 있잖아. 힘든 일은 큰아들과 상의하고”라고 썼다. 김씨는 마지막까지 아내의 도전을 응원했다. 그는 “여보, 패럴림픽에는 꼭 가. 내가 위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문이야. 못한 남편이”라고, 마음을 담아 썼다. 다이어리에는 아내뿐 아니라 일가친척에게 쓴 편지도 있었는데 모두 ‘부인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였다. 이후 패럴림픽을 바라보며 담글질에 집중한 조장문은 도쿄에 도착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조장문(오른쪽)과 남편 김진환 씨

답장을 썼다. 조장문은 “항상 국내 시합 때, 함께 했던 당시의 힘으로 2019년 네덜란드(세계선수권대회)에서 쿼터를 획득해 당신이 걱정하고 원하는 도쿄 패럴림픽에 왔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힘들 때마다 산소를 찾아 (당신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어서 눈물만 나오네요”라고 적었다. 이어 “끝까지 함께 하며 내 오른팔이 돼주셨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늘이 아삭하 기만 하네요”라며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남편 덕분에 아이들과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항상 하늘에서 응원해주세요. 우리 남편 너무 보고 싶네. 사랑해”라고 썼다. 조장문은 2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벌어지는 여자 개인전 리커브 오픈(16강전)에 출전한다. 2016 리우대회에선 이 종목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아~ 0.1점...사격 박진호 아쉬운 은메달

단 0.1점 차로 메달 색깔이 결정됐다. 대한민국 장애인 사격 대표팀의 박진호(44·청주시청)는 1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SH1) 결선에서 253.0점을 쏘아 나타샤 힐트로프(29·독일·253.1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힐트로프와 박진호의 점수 차는 단 0.1점. 이 근소한 차이로 메달의 주인공이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갑작 동메달을 딴 박진호는 은메달을 추가하며 도쿄 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박진호는 결선 첫 10발에서 106.3점을 쏘며 선두에 0.1점 차 뒤진 2위에 올랐다. 결선은 11번째 총알부터 2발씩 쏘 총점이 가장 낮은 선수가 탈락하는 ‘서든 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진호는 11, 12번째 총알을 합쳐 21.0점을 쏘며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10.3점 아래로 한 발도 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다. 경기 막판에는 잠시 위기가 찾아왔다. 19번째 총알을 10.1점에 쏘며 2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박진호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10.5점을 쏘며 다시 1위로 올라섰다. 20번째 총알까지 총점 211.2점으로 2위 힐트로프(210.5점)에 0.7점 차로 앞섰다. 210.3점으로 3위를 달리는 이리나 슈체트니크(22·우크라이나·210.3점)와는 0.9점 차였다. 메달 색깔을 놓고 펼쳐진 박진호와 힐트로프, 슈체트니크의 3파전. 박진호는 21번째 총알을 최고점(10.9점)에 가까운 10.8점에 맞추며 기선을 제압했다. 힐트로프는 10.6점, 슈체트니크는 10.4점이였다. 그런데 박진호의 22번째 총알이 9.6점을 맞췄다. 그가 이날 예선과 결선에서 총 84발 중 유일한 9점대 점수였다. 기회를 잡은 힐트로프는 10.6점을 쏘며 총점 231.7점으로 박진호(231.6점)에 0.1점 차로 앞서 나갔고, 남은 두 발에서도 이 근소한 차이의 리드를 지키며 패럴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박진호는 어린 시절 운동을 즐겨 체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스물다섯 살이던 2002년 낙상 사고로



1일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SH1) 결선에서 박진호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척수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활을 하던 중 의사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고, “남자다운 운동을 하고 싶다”며 총을 들었다. 박진호는 3일 50m 소총 3자세, 5일 50m 소총 복사에서 추가 메달 획득을 노린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신인 드래프트 7일 개최 페퍼, 우선지명권 6장 중 5장 사용

박수연·박사랑·김주희 등 관심

한국프로배구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한 43명이 떨리는 마음으로 7개 구단의 선택을 기다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청담 리베라 호텔에서 2021-2022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KOVO는 1일 43명의 드래프트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다. 18세 이하 대표 출신인 강영여고 박수연(레프트)과 대구여고 박사랑(세터),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세화여고 김주희(레프트), 차유정(센터·레프트) 등이 프로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래프트 참가자 중 키가 가장 큰 중앙여고 센터이예담(185.1cm), 공격력이 뛰어난 일신여상 레프트 박은서도 주목해야 할 선수다.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참여하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은 우선 지명권 6장 중 5장을 쓴다. 페퍼저축은행은 자유계약선수(FA) 하혜진을 영입하며 원소속구단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시즌 연봉 200%인 2억원과 신인드래프트 6명 우선 지명권 중 4순위 지명권을 넘겼다. 페퍼저축은행이 우선 지명을 마치면, 지난 시즌 최종순위 역순을 기준으로 현대건설 35%, KGC인삼공사 30%, 한국도로공사 20%, IBK기업은행 9%, 흥국생명 4%, GS칼텍스 2%의 확률로 추첨해 지명 순위를 정한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연다.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들은 현장이 아닌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으로 참여한다.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9월 28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5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귀문
- 6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9관 모가다슈
- 7관 씨네커풀 코다, 싱크홀
- 8관 씨네커풀 인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E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수준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 산책